

5월 단체-특전사 '졸속 화해' 1년...분열·상처 '진행형'

공로자회·부상자회, 지역사회 반발 무시하고 '대국민 선언' 강행 5·18 단체 내홍 고소·고발전 치닫고 시민사회 분열 후유증 지속

5·18단체가 특전사단체와 용사·화해를 한다며 추진한 '2·19 대국민 공동선언식' (이하 선언식)이 1년이 지났지만 후유증이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충분한 논의 없이 단체 일부 집행부의 결정으로 이뤄진 선언식 때문에 단체의 내홍이 발생해 각종 고소·고발전까지 이어지고 있고, 오월단체와 시민단체 등 지역사회간의 갈등도 봉합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광주지법 민사21부(부장판사 조영범)는 지난 16일 정성국 전 공법단체 5·18공로자회장이 공로자회를 상대로 제기한 이사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정 전 회장은 지난달 공로자회 이사회가 임시 중앙총회를 열고 정 전 회장을 해임하기로 한 안을 통

과시킨 것에 대해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이번 결정은 지난해 12월 5·18부상자회 전 회장인 황일봉 회장이 부상자회를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및 이사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 결정이 된 것과 맥락이 같다.

양 단체 이사회는 황 전 회장과 정 전 회장이 회원들의 뜻을 무시하고 특전사 단체와 화해 행사를 강행하고 정을 역사공인 설립 반대 신문광고를 내고 규탄 집회에 참석해 회원들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어 징계를 한 것이다.

두 단체의 전 회장은 당초 특전사 단체와 화해해 5·18 진실규명에 힘을 합치겠다는 취지라고 밝혔

으나, 뚜렷한 성과도 없이 지역사회 반발을 무시한 채 졸속으로 행사를 강행하고 오월단체와 반목을 일삼다가 광주가 분열되는 결과로 낯을 뜨겁게 받고 있다.

선언식 전후로 특전사 단체가 사과와 진상규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점이 가장 컸다.

특전사동지회는 오히려 선언식 당일 '5·18 무장 폭동살'에 기반한 발언을 해 논란을 자초했다. 최의봉 특전사동지회 총재가 "5·18 당시 군 선배들은 상관의 명에 의해 광주 현장에 파견돼 질서유지의 임무를 맡았다. 헌신과 노고, 희생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한다"고 발언한 것이다.

이후 선언식을 추진한 세 단체가 함께 꾸린 자체 조사위원회는 5·18 당시 투입됐던 계엄군 두 명을 초청해 이미 공개된 증언만 되풀이하다 별다른 성과 없이 해산했다.

공법단체와 시민단체 간 갈등도 깊어졌다. 선언식 이후 200여개의 광주·전남 지역시민단체는 '오월정신 지키기 범시민대책위원회' (오월대책

위)를 꾸리고 공법단체에 사과와 공동선언문 폐기를 요구했고, 두 공법단체는 오월대책위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하며 맞섰다.

두 공법단체는 5·18민중항쟁기념행사위원회와도 대립각을 세우다 공식 5·18 전야제 행사에서 제명되기도 했다.

공동선언을 추진했던 두 공법단체 전 회장이 모두 1년도 안 돼 공동선언에 대해 회의적 입장을 발표해 진정성 논란에 불을 지피기도 했다.

황 회장은 지난 1일 부상자회 회원들이 모인 카오트 단체 채팅방에 '시민사회단체와 회원들과 충분한 논의 없이 진행된 2·19 특전사 화해선언에 대해 죄송하다'는 글을 올렸다. 정 회장 또한 지난해 11월 공로자회 단체 채팅방에서 '공동선언이 5·18 학술 세력을 포용한다는 의미로 왜곡됐으므로, 다수 회원 반대에 따라 공동선언 폐기를 논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지역사회에서는 파행으로 끝난 선언식을 반면교사 삼아 재발방지책과 성숙한 시민 의의 체계가 필

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박대수 오월대책위 대변인은 "공법단체는 하루 빨리 2·19선언문을 폐기하고, 역사를 왜곡하려는 이들을 퇴출하는 등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5·18은 유공자 당사자들만의 문제가 아닌 광주 시민 모두의 것이다. 공법단체뿐 아니라 시민사회, 5·18기념재단, 5·18연구소 등 객관적으로 오월의 미래를 논의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재발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진태 5·18기념재단 상임이사는 "선부른 화해행사로 자칫 5·18 가해자인 특전사들에게 면죄부를 주고 진상규명 기회를 걷어잡았다"며 "두 공법단체장이 선의로 시작한 일이라고 해도 결국 5·18 관계자들과 광주 시민에게 새 상처만 늘린 꼴이다. 적절한 반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각종 물타기와 왜곡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하고, 물리적 충돌 아닌 대의명분 차원에서 성숙한 시민 논의가 이뤄질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연재 기자 yjyou@



5·18 현장에 온 대구 초등학생들 대구 지역 교육단체 '해봄' 역사 체험단에 참여한 초등학생들이 18일 광주시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전일빌딩245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나영주 기자 mjna@kwangju.co.kr

광주지검, 중대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광주지검(검사장 박종근)이 중대범죄 피의자의 신상 정보를 올해부터 공개한다.

광주지검은 학계, 법조계 인사 등을 포함한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구성했다고 16일 밝혔다.

심의위원회는 지난달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범죄 신상공개법) 시행령이 지난달 25일 시행됨에 따라 올해 광주지검에서 처음 꾸려졌다.

심의위원회는 국민의 알권리와 범죄 예방을 위해 '특정중대범죄' 사건에 대해 수사단계에서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기구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총 8명(학계 2명,

법조계 1명, 언론계 1명, 의료계 1명)으로 구성됐다. 외부위원은 5명으로 위촉됐고, 위원장은 외부위원중에서 선임한다. 나머지 3명은 검찰 내부위원이 맡는다.

위원임기는 2년으로 위원회 명단은 법령에 따라 공개되지 않는다.

신상 정보공개 기준은 크게 범행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볼 증거가 충분할 때, 피의자 신상공개가 재범을 방지하고 유사한 범죄를 예방하는 등 공공이익에 부합할 때 등이다. 단, 피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한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 초등생 급식비 지원액 '전국 최저'

시교육청 지원단가 3040원

광주 초등학생 학교급식비 지원액이 전국 시도 교육청 중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경기 오산) 의원이 18일 공개한 '2023-2024년 전국교육청 초등학교 급식 식품비 단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광주시교육청의 식품비 지원단가는 3040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식품비 지원 단가는 공립학교를 기준으로 급식 인원 500명일 때 시도별 식품비 지원단가(일인당 점심 한끼 기준)를 조사한 결과다.

지난해 식품비 단가는 경북이 3910원으로 가장 높았고, 서울(3799원), 경기(3733원), 세종(3717원) 순이었다. 전남은 3294원으로 전국 평균(3272원)보다 약간 높았다.

지난해 11월 조사 기준 올해 잠정 지원단가는

전북을 제외하고 모두 인상했다.

광주시교육청과 전남도교육청은 각각 370원, 400원을 올렸다. 하지만 광주는 전북을 제외하고 전국 17개 광역자치체에서 2번째로 지원액이 적었다.

교육부의 학교급식비 지원 사무는 지난 2005년 이후 지방으로 이양돼 교육청과 지자체가 지역 여건과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책정하고 있다.

안민석 의원은 "지방재정 여건과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지역 간 급식격차는 학교급식의 질과 학생건강에 직결된 문제여서 교육부와 교육청, 지자체가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학교급식의 질과 안전을 위해서는 급식 단가는 물론 학교급식 종사자들의 근무 여건과 자살예방 대책 등도 투자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봄비가 雨水水' 광주·전남 80mm 내린다

100mm 넘는 곳도...22일까지 비

'눈이 녹아서 비가 된다'는 절기 '우수'(雨水)를 맞은 광주·전남에 18일부터 19일까지 최대 80mm의 많은 비가 내리겠다.

광주지방기상청은 "남풍에 동반된 따뜻한 공기가 유입되면 22일까지 비가 이어질 것"이라고 18일 예보했다.

19일까지 전남 동부 남해안 및 지리산 부근의 경우 많은 곳은 시간당 10~20mm의 강한 비가 오는 곳도 있다. 또 일부 산간 지역에는 100mm 이상의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다.

기상청은 19일 새벽 0시를 기점으로 광양, 구례 두 지역에 호우예비특보를 내렸다. 이번 비는 19일 오후 6시-밤 9시 사이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다, 20일 오전 6시부터 다시 5mm 안팎의 비가 추가로 내리겠다.

기온은 전반적으로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기상청은 19일 아침최저기온은 11~15도, 낮 최고기온은 13~19도로 평년 기온(아침최저기온 영하 3.9~0.9도, 낮 최고기온 6.1~10.2도)을 크게 웃돌 것으로 내다봤다.

20일 또한 아침최저기온 2~9도, 낮 최고기온 6~11도의 기온을 유지할 것으로 예보됐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12·12' 맞선 故 정선엽 병장 44년만에 조선대 명예졸업장

조선대가 12·12군사 쿠데타 당시 육군본부 병거를 지키다 희생된 고(故) 정선엽(당시 23세) 병장에 명예졸업장을 수여했다.

조선대는 지난 16일 조선대 서석홀에서 '정선엽 동문 조선대 명예졸업증서 수여식'을 열고 정 병장의 유족에게 명예졸업증서를 수여했다고 밝혔다.

지난 1977년 조선대 전기공학과에 입학한 정 병장은 전역을 3개월 앞둔 1979년 12월 13일 새벽, 육군본부 B2 병거에서 반란군에 저항하다 숨졌다.

이날 수여식에는 정 병장의 유가족, 송기춘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Inno-biz기업, 전라남도 유망중소기업

공공하수·공공폐수·공장폐수 고도처리 전문회사

- 수질 환경전문공사업 / 수질 측정대행업
- 공공하수도 (10,000㎡/일)미만 / 하수관로 관리대행업
-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TMS)
- 환경건설링팅회사, 환경관리대행기관
- 폐기물수집운반업, 해외건설업
- 총질소처리 공법(A2O4공법) 등 특허 4건, 실용신안 2건
- 하·폐수처리시설 설계 시공, 기술자문
- 공공하수/공공폐수 처리시설 시운전 및 유지관리 용역

수처리용 미생물제, 수처리 기자재 제조

- 미생물제품 : 질소처리용 중균제 (Nitcell-O) 하수/폐수처리용 중균제 (Negenzyme)
- 화학약품 : 응결제, 고분자응집제, N,P영양제,
- 고효율 STS membrane 봉 산기관 (TMS-600+)
- 판형 산기관 (TMP-1000)
- 유기탄소원 : 니트셀-C
- 천연고분자 키토산침강제 (Nexchy)
- 자동제어반, 교반기
- 부상조, 슬러지 건조기 등

대기환경분야

- 대기 환경전문공사업
- VOC Treatment System
- Solvent Recovery System
- SCR De-NOx System
- Sulfur(H2S) Removal System
- Dust Collection System
- 기술상담 및 자문

- 1997 태리인더스트리㈜ 법인설립
- 2011 수출박람회, 수출유공자 수상
- 2016 나주시 스타기업 선정
- 2016 중소기업부 장관상 (유망중소기업인)
- 2019 환경부장관 표창 (환경보전 공로)
- 2020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
- 2020 전라남도 유망중소기업 지정
- 2021 LG화학 우수협력회사 선정
- 2022 고용노동부 중소기업 선정
- 2023 국제청 모범납세자 표창

본사, 공장) 58223 전남 나주시 남평읍 동촌로 19
Tel) 061-336-2588 Fax) 061-336-2587

아름다운 자연환경 창조!

태리인더스트리

Homepage : http://www.taeri.co.kr
E-mail : master@taeri.co.kr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 231120-중-161682호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무릎 인공관절 수술 고민될때!
첨단우리병원 원장님과 상의하세요!!

첨단우리병원
광주과학기술원 첨단 쌍암공원 앞 위치

전화 문의 062)970-6000